

Essay

하루살이에도 우주가 들어 있다



한 승 원 <소설가>

기차나 고속버스나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하다 보면 옆 자리에 앉은 사람이 이쪽을 향해 호기심을 가지고 이것저것 묻는 경우가 있다. 어디까지 가십니까. 고향이 어디십니까. 고향이 전라도라면 무조건 김대중을 지지하겠군요. 몇 살이십니까. 아이들은 몇이며 어떤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까. 장가나 시집을 보냈습니까. 아파트에 삽니까. 단독주택에 삽니까. 연립주택에 삽니까. 평수는 얼마나 됩니까. 출신 학교는 어딥니까. 어느 회사에 다닙니까. 어떤 사업을 하십니까. 정구를 치는가요, 골프를 치는가요, 요즘 정치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와 같은 질문에 일일이 반응을 보이고 나면, 상대는 이쪽에 대하여 모든 것을 다 알아버린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한다. 너도 그렇고 그런 사람이었구나. 네 나름으로는 제법 한다고 하지만 나만큼 누리고 살려면 아직 멀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그 사람은 자기보다 못한 이쪽을 상대하려고 하지 않게 되고 거만해진다.

혹시 이쪽의 체취가 자기 몸에 묻을까. 이쪽의 침방울이 자기에게 날아올까 두려워하고 피한다. 혹시 이번의 인연을 빌미로 기대지나 않을까 경

계한다.

어떻게 잠깐 여행을 함께하면서 궁금한 것 몇 가지만을 물어 보고 나서 그 사람에 대하여 다 알았다고 할 수 있단 말인가.

등산을 하는 사람은 어떤 산을 한 번 오르고 나서는 그 산을 정복했다고 말한다. 어느 나라를 한 번 여행하고 나서는 그 나라에 대하여 속속들이 다 알아버린 것처럼 자신있게 이야기한다. 어떤 남자들은 어느 여자와 잠자리를 한번 같이하고는 그 여자를 정복해 버렸다가나 소유했다고 생각하고 너도 별것이 아니다 하고 가벼이 보아 버린다.

1시간이나 30분쯤에 책 한 권을 읽어 버리는 「책 빨리 읽기」가 성행하고 있다. 대충대충 슬렁슬렁 읽고 나서는 그 작품은 이리이러한 것이라고 말해 버린다. 그것은 틀림없이 수박겉핥기의 오독일 수밖에 없을 터인데도.

어떻게 산을 한번 올라가 보고 나서, 어느 여자와 잠자리를 한두번 같이 했다고 하여, 한번 여행을 했다고 하여, 그 산이나 그 여자나 그 나라를 정복하고 소유하고 속속들이 알아 버렸다고 말할 수 있단 말인가.

어떤 책 한권을 한차례 대충대충 슬렁슬렁 읽고 나서 그 책과 그 작가에 대하여 모든 것을 다 알아 버렸다고 말을 할 수 있단 말인가.

한번의 등산으로 그 산을 정복했다고 말하는 그 사람은 그 산에 사는 새나 짐승에 대하여 얼마만큼 알 수 있었을까. 그 산에서만 볼 수 있는 풀이나 나무나 꽃에 대하여 생각을 해보았을까. 그 산에서만 볼 수 있는 지질학적인 것, 풍광, 그 산에만 어려 있는 유서를 알아냈을 것인가.

우리는 과연 어떤 대상을 참으로 정복할 수 있을까. 하루살이 한마리 속에도 거대하고 오묘한 우주 하나가 들어 있는 것을.

우리는 어떤 대상에 대하여 너무 쉽게 다 알아 버린다. 쉽게 거죽만 알아 버리고 깊이 뚫어 보려고 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삶이 가벼워 있는 까닭이다. 우리들의 가벼워진 삶은 우리 자신의 존재를 마찬가지로 가볍게 취급당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든다.

우리들이 가벼이 지나쳐 버린 어떤 산의 풀잎과 나무 이파리 하나, 꽃 한송이, 새 한 마리, 기는 짐승이나 곤충 한 마리는 얼마나 고귀한 존재인가. 우리들의 삶이 무거워지려면 그것들과 교감하고 교통하지 않으면 안 된다. 교통하고 교감하려면 먼저 그들을 주의 깊게 살피고 그들의 이름을 불러 주고 그들을 존중하고 그들과 사귀어야 한다. 그들이 있으므로 내가 있고 내가 있기 때문에 그들이 있음을 생각하여야 하고 그들이 없어지면 나도 마찬가지로 없어지게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관계」를 생각해야 한다. 관계란 것은 풀잎 하나에 우주가 담겨 있고, 우주 안에 그 풀잎이 담겨 있는 깊은 인연을 말한다. 하나 속의 전체, 전체 속의 하나라는 관계 말이다. 내가 있으므로 나라와 민족이 있고, 나라와 민족이 있으므로 내가 있다.

전라도 사람이 있으므로 경상도 사람이 있고, 경상도 사람이 있으므로 전라도 사람이 있다. 경상도 사람이 있으므로 강원도 사람이 있고, 강원도 사람이 있으므로 경상도 사람이 있다. 충청도 사람이 있으므로 서울 사람이 있고, 서울 사람이 있으므로 충청도 사람이 있다. 평양 사람, 함경도 사람, 황해도 사람, 평안도 사람, 경상도 사람, 충청도 사람이 있으므로 전라도 사람, 경상도 사람이 있다. 남한이 있으므로 북한이 있고, 북한이 있으므로 남한이 있고 달이 있으므로 지구가 있고, 지구가 있으므로 달이 있다.

부처님이 있으므로 예수가 있고 기독교가 있으므로 불교가 있다. 자기의 종교에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의 종교에도 구원이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그 관계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나는 반드시 있어야 하지만 너는 없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 주장은 관계를 무너뜨리는 것이고, 그것은 피를 흘리지 않으면 안 되는 싸움을 만든다. 그 싸움을 우리 삶을 가벼워지게 한다.

우리 삶의 조화로운 무거움은 그러한 관계를 확실하게 인정하기에서부

터 생겨난다. 관계를 인정하는 것은 생명을 예찬하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 삶을 조화롭게 꽃피우기다. 우리는 우리 삶이 가벼워지는 것을 늘 성난 얼굴로 성찰하며 경계하고 살아가야 한다.

우리 주위에서는 과연 어떤 사람들이 그 관계, 서로를 인정하고 더불어 사는 조화로운 삶을 깨뜨리려 하는 것일까. 그들은 경제적으로 많이 가진 자이거나 이때껏 누려 온 기득권을 잃지 않으려는 부류들이다. 그들은 그들의 기득권 언저리로 들어서면서 제 목소리를 내려고 하는 무리를 경계한다. 그 무리가 그들의 기득권을 넘보는 것이라고 여기고, 아예 그 상대를 밟아 죽여 없애려고 한다. 밟아 죽이려고 하는 자와 밟혀 죽지 않으려는 자들 사이의 피나는 싸움이 벌어진다. 그 싸움의 와중에 사는 사람들은 튀겨 오는 흙탕물 때문에 고통스럽다.

우리는 상대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밟아 죽여 버려도 배탈나지 않고 넉넉히 잘살 수 있다는 오만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상대를 인정하는 것은 더불어 사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가 되는 것이다.

요가 수행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말할 것도 없이 그들은 육체적·정신적인 건강을 위해 몸을 단련한다. 한데 그 단련의 요체가 되는 것은 하나가 되려는 것이다. 정신과 육체를 하나로 되게 하려 하고, 전혀 다르다고 생각되는 두 개의 이념을 하나로 만들려고 한다. 선과 악이 하나이고 미움과 사랑이 하나이고 떠남과 머무름이 하나이다. 부처님과 여호와가 하나이고 중생과 부처가 하나이고 하나님과 에벌레가 하나인 것이다. 불교에서는 그것을 불이(不二)와 반야(참다운 지혜)라고 말한다.

우리 삶이 무거워진다는 것, 그리고 차근차근하게 조화롭게 사는 것은 참으로 하나로 살아가는 것이다. 에벌레와 중생을 하나님이나 부처님으로 떠 받드는 그런 삶. ▲▲